

# NO. 27 NEWS LETTER : WILLING N DEALING

## PREVIE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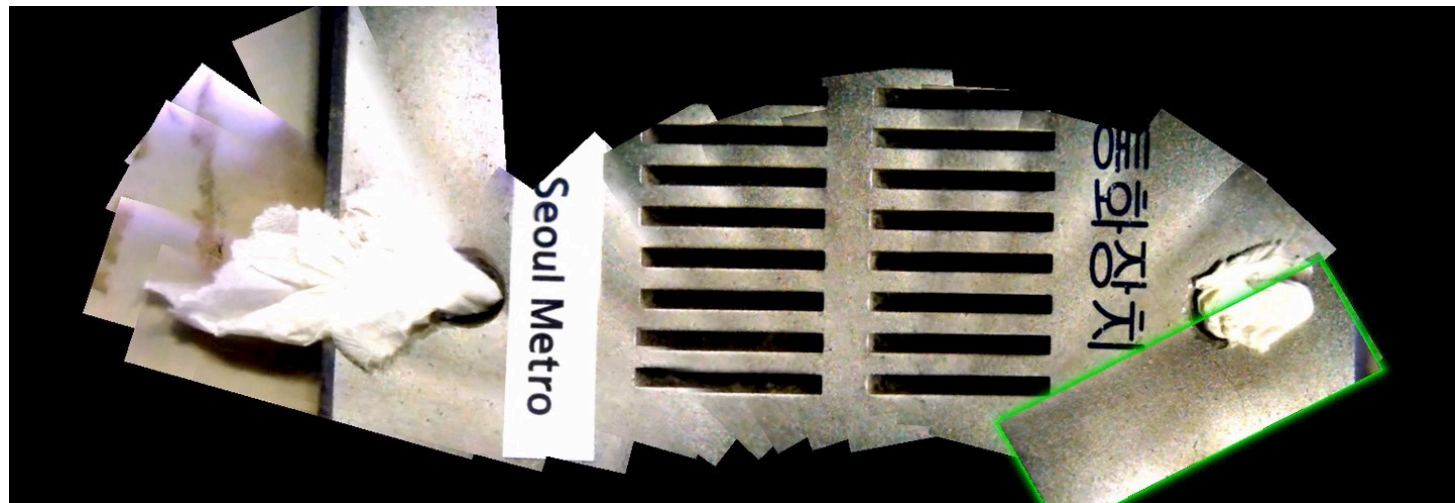
나를 위한 말하기 *Speaking For Myself* 2018. 10. 5 - 10. 25

정아람 개인전 Jeong Ahram's Solo Exhibition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없습니다.

아티스트 토크 2018. 10. 13 16:00

정아람은 문화적 생산자로서 개인의 가능성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험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나를 위한 말하기>에서 젠더라는 변수와 함께 진행되는 혐오 사건이 촉발한 여성들의 말하기에 주목하고 이들 개개인들의 말하기를 또 다른 개인과 연결한다. 이번 전시는 '말하기'를 개인이 현상태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이며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건적 발생으로 보며 확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연히 살아남은 내가 당연히 살아남았어야 할 너에게 *Accidental Survivor* HD 영상 및 사운드, 프롬프터 설치, (2016/2018)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 희생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메시지 아카이브 중에서 한 여성의 죽음과 관계하여 자신의 '살아남음'을 이야기하는 익명의 개인들의 말들에 주목하여 원고문을 만들고 이를 이주자의 낯선 음성을 통해 시연한다. 발화를 보조하는 장치인 프롬프터의 흐르는 텍스트가 화면에 노출된 채, 발화자의 서투고 낯선 음성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그 자신을 정체화하며, 이러한 관계적 구조를 통해 포스트-잇 메시지의 원저자인 '한국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넘어서 또 다른 권력구조 내 타자의 생존에 대한 발언으로 변화한다. 영상과 함께 프롬프터 설치를 통해 발화 공간을 제시하여 발화자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질문한다.

공공 신체 프로토콜 *Public Body Protocol* HD 영상 및 사운드, 2018

여성 퍼포머들은 하나의 양상블이 되어 서울 도심의 한 공공장소에서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작가는 시위 진압과 구조 장면들로부터 관찰된 행위로부터 퍼포먼스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여성 퍼포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신체적 접촉과 보조 행위로 이행한다. 공공의 장소에서 또는 공공에 의해 개인의 신체가 다뤄지는 헤게모니적 질서와 프로토콜에 대해 질문하는 사회적 신체를 형성한다.

*Peer to Peer, Woman to Woman* 영상 및 구조물 설치, 2017-2018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젠더위계화된 불안과 혐오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 공공화장실의 큐비클 구조를 건축적으로 변형하여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의식화하는 잠재적인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젠더 위계적 응시에 대응하는 개인의 여러 시도들,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이 휴지를 사용해서 화장실의 작은 구멍들을 막거나 마스크를 쓴 채 화장실에서 인증샷을 찍는 등의 행위들을 가져와 그 자신과 또다른 여성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는 상호적 전유 안에서 연결관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외설적 응시와 혐오의 이미지가 사적/공적, 오프라인/온라인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만연화된 채 개인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응하는 여성 개인들의 일상적 실천과 다양한 주체성의 협동이 만들어내는 차이화를 제시한다.

# NO. 27 NEWS LETTER : WILLING N DEALING

## PREVIEW :

나는 하나가 아니다 *I Am Not One* 2018. 9. 4 - 9. 28

오인환 개인전 Oh Inhwan's Solo Exhibition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 없음, 9. 24-26는 추석 휴무

아티스트 토크 2018. 9. 15 16:0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18년 9월 4일부터 28일까지 오인환 작가의 개인전 <나는 하나가 아니다>를 진행한다. 미술작업을 지배문화가 허용하지 않는 다양한 '문화적인 사각지대' 찾기로 규정하고 있는 오인환은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문화적 규범에 도전하는 개념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리고 이번 개인전에서 소개될 오인환의 작업들은 퀴어적인 입장에서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문화 코드와 구조를 재해석하고 해체하는 그의 문화 비판적인 미술의 연장선상에 있다.

Inhwan Oh's solo exhibition, "I Am Not One" is to be held from September 4th to 28th, 2018 at Space Willing N Dealing. Oh, who defines artwork as looking out for the 'cultural blind spots' that are not accepted by the dominant culture, is a conceptual artist whose work is developed from the issue of identity and challenges the cultural norms that are accepted by society without question. In Oh's works that are showcased in this exhibition are his attempts at reinterpreting and deconstructing the cultural code and structure prevalent in our paternal society from a queer perspective, and is a part of his cultural critique art.



이번 전시의 제목 "나는 하나가 아니다"는 개인의 정체성이 '복수(plural)'의 것임을 의미하기보다는, 고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임을 뜻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작업들은 하나로 귀결되는 보편적 삶의 방식 너머에 있는 다양한 타자의 경험들을 통해서 표준화된 일상과 문화적 규범을 탈고정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작업의도를 함축한다. <나의 이름들>(2012/2018)은 일본 교토아트센터에서의 레지던스 기간에 시작한 작품으로, 자신의 성(surname)을 여러 차례 바꾸어야 했던 일본 여성과의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소개된 이름들을 작가가 다림질로 쓰고 지우는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일본 여성은 부모의 결혼과 이혼에 따라서, 이후에는 자신의 결혼과 이혼으로 성을 바꾸는 경험을 한다. 이름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라고 생각했을 때,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잦은 이름 변경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유동하는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 숙고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작업 <남성을 위한 꽃꽂이>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강화하는 일상의 행위와 관행을 역이용하여 문화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I Am Not One" implies that an individual's identity is unfixed and fluid, rather than suggesting that one's identity is multiple, which cannot be regulated to a single one. The works presented in this show conveys the possibility of loosening the standardized lives and cultural norms that are fixed through other's experiences that go beyond the universal way of life that are in essence, the same. Oh first started his work "My Names" (2012/2018) during his stay at the Kyoto Art Center in Japan. It is a film of an interview of Japanese women who had to change their surnames multiple times, and a documentation of his performance of writing and erasing the names mentioned in the interview with a clothes iron. In Japan, a patriarchal society, the women change their names when the parents divorce, or later when they themselves divorce. If a name is a symbol that depicts a person's identity, then repeated name changes due to external influences will make one ponder one's own fluid identity. Another work titled "Flower Arrangements for Men" deconstructs and exploits an everyday activity and practice that strengthens the norm of an individual's identity in Korea to attempt at cultural interpre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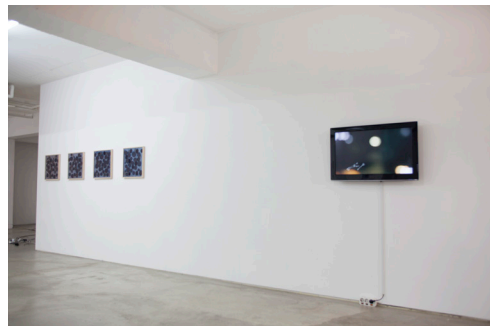


뜨거운 공기, 차가운 악기들

박지훈 개인전 2018. 7. 13 - 8. 3

- ① 오프닝 리셉션 : 2018. 7. 13 오후 5시
- ② 아티스트 토크 : 2018. 7. 21 오후 4시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은 목적이 불분명한, 수수께끼와도 같은 작품들을 탐미하게 된다. 융집된 금속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점들의 리듬을 보여주고, 작동하는 여러 장치의 기능을 위해서라기엔 옹기종기 있거나, 과하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동작을 반복한다. 투박함과 섬세함, 명료함과 모호함의 경계에 교묘하게 걸려있는 작품들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시적이고 독특한 작품의 제목들은 어느 정도 단서를 주기도 하지만, 관객의 상상은 작가의 스토리텔링과 일치하거나 혹은 미끄러지면서 묘한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글. 맹성규 인턴)



고체-액체 임계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CAS 공동기획 한일 교류전 2018. 8. 10 - 26

- ① 오프닝 리셉션 : 2018. 8. 10 오후 6시
  - ② 퍼포먼스 : 2018. 8. 10 오후 7시
- 카나자와 켄이치, 나카메 히로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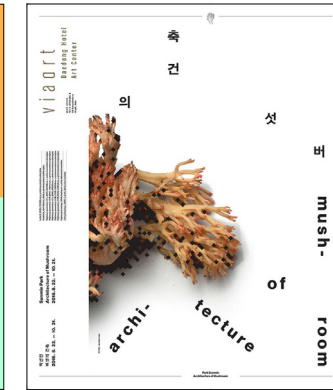
다양한 시도를 하는 14인의 작가들이 모여서 보여준 작품들은 짐작대로 실험적인 태도와 형식을 보여주었다. 공통적인 지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재미 또한 관람 과정의 포인트였다. 이미 2017년 일본 CASO에서 함께 전시를 한 한-일 작가들은 서로의 작업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번 전시는 일본 작가 7인이 먼저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한국 작가 7인이 반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시 제목 <고체-액체 임계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꼭 맞았을 제목이라고 생각된다. '임계점(critical point)'의 발견 여부와 별개로 관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자 작가들에게는 앞으로의 계속될 시도에 호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본다. (글. 한황수 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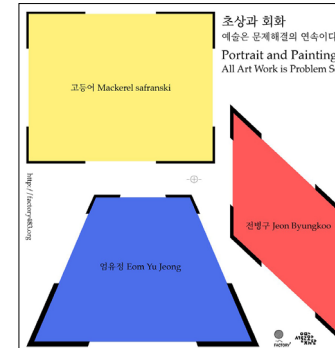
유영진 작가는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 <Cambrin explosion>을 가집니다.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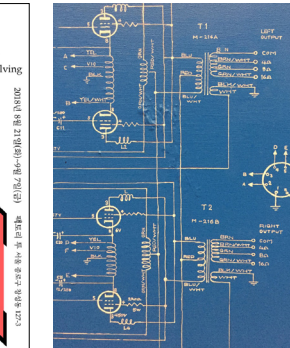
로와정 작가는 <2018 광주비엔날레 : 상상된 경계들>에 참여합니다.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박선민 작가는 viaart gallery에서 개인전 <버섯의 건축>을 가집니다.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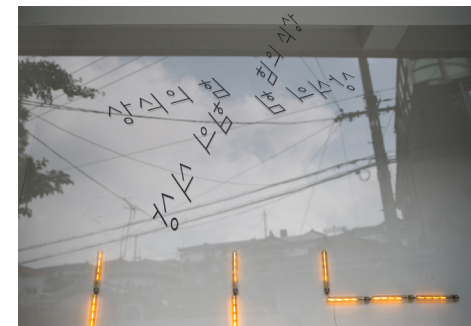
전병규 작가는 팩토리 투에서 그룹전 <초상과 회화, 예술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에 참여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신기운 작가는 스페이스바에서 '예술가의 실현' 세운상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인전 <존재 했었다. 존재한다. 존재할 것이다.>를 가졌습니다. 8월 7일부터 22일까지.



홍범 작가는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에서 그룹전 <apmap>에 참여합니다. 8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최승훈 작가는 스페이스 이끼에서 일인출판사 egoego를 알리는 개인전 <프로젝트 살구이끼 3: egoego>을 가졌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황귀영 작가는 윌링앤딜링에서의 4월 개인전에 이은 집에서 전시를 가졌습니다. 작품에 참여한 주민분들을 초대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정형, 홍범 작가는 8월 25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예빛섬에서 네이비가 지원하는 '온 스테이지X'에 참여했습니다. 10CM X 이정형, 세소년 X 홍범의 교감으로 꾸며진 무대를 선보이며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전다빈 작가는 함안의 무진정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왔다고 합니다. 연못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SOLO SHOW**

일정 10월 26일(금)~10월 29일(월) 4일간  
 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 (해답하우스)  
 주최 및 진행 협동작전 (COOP, Check Out Our Project)  
 참여공간 갤러리2,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갤러리 조선, MK2 갤러리, 가나아트갤러리, P21, 합정지구, 아마도예술공간, 원룸, 갤러리 플래너, 조현화랑, 의외의조합, 휘슬, 아트사이드, 갤러리ERD, 학교재 등 16개 공간  
 www.soloshow.info

김인선 디렉터는 갤러리2의 정재호 대표와 갤러리 조선의 여준수 매니저와 함께 '협동작전'이라는 팀을 결성하였다.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모여 작당 모의를 하던 중 10월 26일에 시작되는 16개 갤러리와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기 하였으며(SOLO SHOW)안내 참조, 좋은 결과를 기원하며 18일짜리 문신을 그렸다. 고대 바이킹의 문자로서 JOY와 INITIATION을 의미한다.



최정운 협력 큐레이터는 잠실창작스튜디오 참여작가 12인으로 꾸민 기획전 <흐르는흐름>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생각해 온 미술의 범주가 협소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으며, 세상은 넓고 배워야 할 것은 참 많음을 느꼈다.

한황수 코디는 별 소식은 없고, 비 소식만 있는 오늘 오그라드는 글을 살짝 꼬적여본다. "우리는 넘쳐 흘러서 대분수였는지 조금 부족했는지 대분수였다. 쪼개지고 난 이분의 일이 되었다."

맹성규 인턴은 구글캘린더 사용을 점차 습관화하고 있다. 일정의 종류에 따라 어떤 색을 지정할지 계속 고민중이지만, 일단 윌링앤딜링에 출근하는 날은 로고색깔에 맞추어 하늘색으로 정했다. 알록달록한 캘린더의 일정을 무탈히(?) 소화하고나면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윌링앤딜링	Willing N Dealing
방배 아이파크	방배 아이파크
윌링앤딜링	윌링앤딜링

주소 : 서울서초구방배동 777-20번지 2층  
 전화 : 02-797-7893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맹성규  
 감수 : 김인선  
 발행일 : 2018년 9월 3일

www.willingndealing.com  
 www.facebook.com/spacewillingndealing  
 willingndealing02@gmail.com